

# Wom's Guide

Wom - 소설 '이달의 여자'를 통해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자국을 뜻한다. 남성은 'man-won'이라 하며, 'won'에서 파생된 말이다.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먼저 존재했다면 남성을 뜻하는 표현도 달라졌을 것임을 강조하는 말.

[4월]

만든 날 : 2004년 4월    만든 이 : 글, 그네, 생식, 우동, 파라, 하니    연락처 : 921-7005

이달의 테마

달 · 거 · 리 · 이 · 야 · 기

"어머니 대자연은 자식인 우리 인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 만약 내가 그 선물들을 이해하고 좋아한다면 그것들은 힘을 갖게 되고, 내 삶은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선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하지만 모든 여성에게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매달 찾아오는 '흐름'의 선물이야. 그 흐름은 평생 동안 흐르는 감정이라는 거대한 강으로 들어가는 통로란다. 그것은 널 감싸안는 깊은 바다 속으로 데려갈 거야. 그곳에서 넌 자신의 마음을 믿는 데서 나오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지"

- <달빛 아래서의 만찬> 中

달거리, 28일 달의 주기로 돌아오는 여성의 '흐름'의 선물. 그러나 언제나 감춰야 할, 들켜면 안 될 비밀스러운 여성의 어쩔 수 없는 괴로움으로만 여겨져 왔다. 슈퍼에서 생리대를 사면 늘 검은 색 봉지에 담아주었고, 생리 중 예민해진 감정은 생리 중임을 들켜지 않기 위해 감추고 또 감추어 했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임에 당당해지기 위해 그동안 입에 담은 것이 금기시 되었던 '달거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자연이 준 선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올해로 6회를 맞게 될 \*월경 페스티벌을 비롯해, 대안 생리대에 관한 움직임 등 여성의 삶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차지하는 월경 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소리 내 말하고 싶다. 나의 초경에 대한 경험과 오랜 시간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의 질에 대해서, 여성만이 겪는 생리통에 대해서, 생리에 대한 '그림'들의 오해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든 생리대라는 필수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이다. ▶ 2,3면에서



## 교수 성폭력을 말한다!!

### 신성한 대학교에서, 그것도 어떻게 교수개!!!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교수가 학생들을 성폭력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성폭력'은 하나의 성역으로 치부된다. 또한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말해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수가 자신의 지위에 기대 학생들에게 행할 수 있는 권력은 엄청나다.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NO!!라고 외치는 것은 쉽지 않다. 사건이 발생해도 교수를 징계 처벌하는 일은 어렵다. 학교 내 조사위원회의 운영진들이 모두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해교수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사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떠나는 건 피해자인 학생일 수밖에 없다.

### 내가 예민한 게 아냐!!!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여성주의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수업을 듣다가 보면 교수들의 말이 거슬릴 때가 있다. 여자는 시집이나 가라는 등, 못생겼으면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는 등,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들이 분명 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교수 앞에서 절대 아니라고,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여성들을 비하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으나, 학점으로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참곤 한다.

###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작년에 여학생위원회에서 주최한 제 8회 여성해방제가 열렸었다. 그 때, 여성해방제 실천단이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학교 측에 전달하였고, 수업평가서에 '성폭력'과 관련된 문항을 넣는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다. 이것을 학교 단체들이 끊임없이 학교에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 1년 나기 프로젝트'에서는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수업시간에 반여성적인 발언을 한 교수에게는 경고를 한다고 한다.

학교가 더 이상 성폭력의 사각지대로 놓일 수는 없다. 쉬쉬했던 일처럼 덮어놓는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결코 예방되는 것도 아니다. 교수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끄럽게 학교를 들쭉이게 만들어 교수성폭력이 없는 고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 런지~~



이달의 여성주의 소식

### 여성주의 일년나기 프로젝트

지난 3월 8일 선포식을 가진 '여성주의 일년나기 프로젝트'에서는 감춰지고 금기시되어 온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Red Card' 운동을 통한 알려 내기와 모니터링을 통한 소리내기를 시작하였다. 수업시간에 들었던 성차별적 발언들, 그 불쾌함에 대해 함께 소리내기는 화망하는 사람은 싸이월드 클럽 '여성주의 일년나기 프로젝트' 내 '모니터 요원 신청'에서 동참할 수 있다. 또는 kufemi@korea.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여성영화제, 4월 2일부터 9일까지 신촌 아트레온과 녹색극장,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20개국의 총 7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렵고 이렇게 만나기까지도 어려웠던 '여성'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아시아특별전, 영페미니스트포럼, 여성영상공동체 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삶의 다양한 부분을 담아낸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www.wffis.or.kr)

### 석순 24집 발간

4월 초,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스물네번째 석순이 발간된다. 이번 책에는 인권운동을 하시는 장애여성의 인터뷰, 장애여성의 연애이야기, 레즈비언의 연애이야기, 남자와 연애하는 여자 이야기 등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애의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결혼'에 관한 다양하고 속깊은 고민들, 학내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실 그리고 교수 성폭력과 동성간 성폭력 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성의 몸, 남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고민과 노력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연한 성매매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우편주문 신부에 대한 글 등이 실려있다.

# 나의 초경 이야기

'여자에'에서 '여자'로 한 단계 올라선 듯, 그만큼 내가 보석 지 라닌 듯, 조금만으로도 빛나고, 일터 에서도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 고 어리둥절한 그런 날...

출처는 '소곤소곤다락방' 싸이월드 클럽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난 3월2일에 초경을 했다. 중학교 1학년이었고, 2학년 이었나 기억은 안 난다. 근데 그 때 나는 정말 뭐랄까 성에 대한 무지함은 물론! 말하는 것조차 싫었던 수줍음 많아 서... 엄마한테 말하는 게 웬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실은 3 월 2일에 했는데 하룻밤 동안 꿈꿨다가 비로소 다음날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3월3일이 초경한 날인 줄 알 것이다. 초경을 하고 엄마는 신이 났는지 속옷 사러 가자고 했 고 가서 지금 해보면 맞지도 않을 브래지어 몇 개와 생리팬티라 고 하는 흑시 새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샀다. "엄마 ~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 "음 ^.^ 알았어" 하지만 난 듣고 야 말았다!!!!!!!!!!!!!!!!!!!!!! 그날 저녁 안방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엄마 : 여보, 우리 딸이 오늘 초경을 했다네~ 오늘 가서 브래 지어랑 팬티랑 어찌고저찌고...

아빠 : 그래 ? (묵묵부답)  
하- - - - - : 엄마는 배신쟁이, 거짓말쟁이 비밀로 하기로 했 으면서 - - - - - 그 이후 한동안은 아빠 보기도 창피했고 엄마도 미 려다는... 하지만 티 낼 순 없고 정말 안 좋은 추억이었다.

♀ 저는 갑자기 일어난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떨리 하 는 마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 시간에 흰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그 날도 별로 다를 것 없이,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그만 흰 바지에 빨갛게 꽃이 피었지 뭐예요. =.= 그 걸 본 친구들이 기겁을 해서 "야!!!!!!" 이러더니 우르르 뺨을 물 러와서 제 뒤를 가려주고, 한명은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주면서 그걸로 가리고 양호실에 다녀오라고, 결국 전 잠시, 학교에 가 까웠던 집까지 다녀오고, 익숙하게 생리대 뜯어보고 +.+; 쉬 는 시간에 여자애들은 축하한다고 그러고, 남자애들이야 뭐. .... 그냥 모른 척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가 그냥 지나가면서 다정한(?) 몇 마디 해주고 지나갔던 기억이, 집에 가서 자랑을 했죠. 온 가족 둘러 앉아 식사하면서, "나 생리 시작했다 - - -"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고 아빠는 "허허, 별써? 요즘 애 들 조숙 하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누구는 생리 파티도 하고 누구는 선물도 받고 그랬다길래, 은근 슬쩍 기대했는데, 저녁 밥 많이 먹은 것 빼고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ㅋ

♀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기억하는데 그 때 내 생각에도 겹도는 얘기만 줄창 해낸다고 속으로 공시령 대던 '성교육'이라고 명명하기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한 시간짜리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건진 것이라고는 복 한에서는 부르는 용어 정도였죠. [자지,는 손가락 발가락처럼 몸 가락,이라 부르고 보지는 몸통새,라고 부른대요. 제 생각에는 자지니 보지보다 몸가락 몸통새 쪽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초경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다지 늦은 편도 또 뭐 그리 빠른 편도 아니었어요. 배가 아픈 것이나 흐르는 느낌이라던가 따위는 전혀 없이 어느 날 화장실 에 앉아 무심코 눈에 들어온 속옷에 묻은 선혈, 달려가 엄마를 부르고 엄마에게 "우리 딸, 많이 컸네~" 뽀뽀를 받고 서툰 솜씨 지만 엄마에게 배운 대로 속옷에다 생리대를 붙이고, 서걱서걱 달는 패드의 느낌도 이상하고 어쩐지 허리도 아픈 듯, 아랫배도 아픈 듯, 허벅지도 아픈 듯, 그렇게 엄마 팔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던 거 같아요. 뭔가 나도 엄마처럼 이모를처럼 다른 언니들 처럼 화장 곱게 하고 예쁜 치마 입고 세련된 머리핀들과 귀걸이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할 수 있는 '여자'에서 '여자'로 한 단계 올라선 듯, 그만큼 내가 쑥쑥 자라난 듯, 좋으면서도 설레 고, 설레면서도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어리둥절한 그런 날이었지요, 후후.

♀ 5학년 여름이었어요. 날짜도 기억해요. 1995년 8월 25일. 엄마, 아빠랑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느낌이 이상 해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닦아 내니까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야, 을게 왔구나.' 저는 그 휴지를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고, 속옷에 휴지를 좀 틀어서 대어 놓고 바로 엄마를 끌고 와서는 흑여 부 업에 있는 아빠가 들을까 바다의 휴지만 손가락으로 힘주어 가 리켰던 기억이 나요. 아쉽게도 생리대를 처음 어떻게 했는지 기 억은 나질 않아요.

엄마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는 목욕 시켜줄 때마다 생리에 대한 이야기 해줬던 것 같아 요. 하여튼 그 날 친하게 지내던 집과 외식을 하였습니다. 심부 를 가지 않으려는 저를 혼내는 오빠에게 엄마는 '내가 지금 배 슬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ㅋ

## 생 리 대 이 야 기

가장 대표적이라는(내부적 결정) 삼대 생리대 상품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보았다.

### 화이트

♀ 장점 : 중간 부분의 놀라 운 흡수력으로 샘 방지 뛰어 남, 어지간해 움직여도 꿈쩍 않는 고정력! 놀라워라.  
단점 : 오래 착용 시에 피부가 아픔.

### 위스퍼

♀ 장점 : 화장실에서 허둥덜 필 요 없는 원터치 포장! 계속되는 업그 레이드와 산상품에 대한 회사의 노 력이 가시하다.(허브, 팬티라이너 등)  
단점 : 가격이 세다는 것이 단점. 역 시 오래 착용 시에 피부에 비닐의 느 낌이...

### 좋은느낌

♀ 장점 : 좋은느낌의 최대장점은 촉 감이다. 다른 생리대의 표면이 꽤나 비닐 스러운데 비해 면속옷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피부에 자극이 적다.  
단점 : 하지만 양이 많은 날은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평가도 받는다. 너무 오래 착용할 시에는 숨 표면이 일어난다.

## 니 들 이 탐 폰 을 아 느 냐 ?

둘째 날 밤, 잠자기 전에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대고 잠을 청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보니 엉덩이 곡선을 타고 핏방울이 흘러 팬티와 아랫을 적신 경험이 있는가? 잠잘 때는 자세를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리 중 관리하기가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잠잘 때 탐폰이 더 간절하다. 흑시 아직도 '처녀막' 이 손상될 것을 염려해서, 아니면 자신의 질 위치를 몰라서 탐폰착용을 주저 하고 있는가? 탐폰을 착용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처녀막에 대한 환상을 버리 고 자신의 보지와 친해지는 기회를 가지길!!

### 플레이텍스

장점 : 외통이 국산보다 더 슬림하여 착용감이 더 좋다. 숨이 찼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덜하다.(숨이 깔대기 모양으로 감겨있기 때문)  
단점 : 가격이 비싸다!! 씨! 생리대 부가세 패지해라!!

### 템 포

장점 : 수입 산보다 가격이 싸다. 삽입형 생리대라는 획기적인 국내제품 으로 국내 여성들에게 처녀막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고 자신의 보 지와 친하게 만드는데 일조함  
단점 : 피를 흡수했을 때 숨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듯 하다. 이 경우 탐 폰을 탈착하는데 고통스럽기도 하다.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은 수영을 하거나 많이 움직일 일이 있을 때 편안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생리혈이 많을 때는 밑에 달려있는 실을 따라 피가 흐르기도 해서 또 다른 패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중의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다. 또한 삽입형 생리대의 단점은 질 안 의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하여 질 안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것. 그로 인해 질 안의 pH농도가 변화하여 잡균이 침입하거나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대안생리대란 무엇인가요?

대안생리대란,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이 지니고 있는 폐해들에 저항하여 여성의 몸과 환경에 친근한 생리대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리대를 말합니다.

### 왜 생리대는 하얀색이지?

기존 생리대는 색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표백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여성의 몸과 환경 속에 축적됨으로써 많은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생산되는 모든 생리대는 하얀 순백의 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순백의 깨끗한 생리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의 생리를 은폐하고 순결하게 포장하는 시각이지 않은가요?

### 여성과 환경을 위한 생리대!

잘 씻지 않는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의 처리과정은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이는 여성의 몸에도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대안 생리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 대안 생리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대안생리대 : 천으로 만든 생리대.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딱딱단추를 달고, 예쁜 색깔의 천으로 생리대를 만들고, 안에는 흡수력을 위해 라이너를 만들어 넣죠. 천은 주로 울을 쓰는데, 싸고 부드러운 데다가 색깔도 다양하고 이렇게 많아서 좋습니다.

피자매연대 사이트 [www.bloodsisters.org.org](http://www.bloodsisters.org.org) 에 들르시면, 만드는 방법도 잘 소개되어 있고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커피(keeper) : 천연고무로 만든 조그만 용기 같은 것으로 질 입구에 넣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생리혈을 따라 내고, 잘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3. 해면 : 대안 생리용품 중에서 최고의 작용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재료를 구해 쓰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해면이란, 바다의 생물이라고 하는데, 바위 같은 곳에 자라는 해면을 스펀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자기에게 맞게 잘라내서 삽입형 생리대처럼 쓰면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꺼내서 비누 약간과 물로 빨아서 다시 쓸 수 있고, 살기도 하는데, 오래 살으면 상하고 딱딱해진다고 하니까 2분정도 살짝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읽어  
보세요~~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현실문화연구/ 글로리아 스타이넵  
이갈리아의 딸들 황금가지/ 게르트 브란트베르그  
달빛 아래서의 만찬 넥서스/ 아니타 존스턴

## 생리통을 아느냐??

생리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생리통.

물론 생리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부럽다.+ + 허나... 생리통! 이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허리는 굽어질 것 같고, 잠잘 때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려서 아파온다. 이렇게 정말 신통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 통아려온 것처럼 아랫배가 살살 아프지 않다. 화장실, 주구장창 아프다. 똑바로 앉아서 수업듣기 힘들 때도 있다...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생리통은 심해진다. 특히 시험기간과 겹치면 생리통 때문에 힘들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설상가상이다. 생리통은 혼자 오면 줄으려만 어쩔 땐, 변비와 설사 혹은 감기를 동반한다. 이럴 땐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얼얼한 소리 내어 울고 싶다.

그래도!! 생리통, 아프긴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이왕 하는 생리와 생리통이라면,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 우리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을 비롯한 각종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막상 산부인과에 가기는 꺼린다.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해 비혼 비혼(非婚) : 해야 하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비혼(非婚)이란 말 대신 그저 결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비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의 여성이 산부인과를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버린다.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면서 산부인과는 임신한 여성들만 간다고 생각하는 풍토 때문에 아파도 여자의 운명이라니 감수해버리는 것이다. 대부분 한번은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가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더 큰 병을 키우기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그래도 섣불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많은 비혼 여성들을 위해 안명옥 교수가 세운 병원이 바로 소녀들의 산부인과이다.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이 병원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에 많은 비혼 여성들이 찾고 있다. 때문에 꼭 임산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서 진료를 받으러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안교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검진시간을 마련해 아예 기혼자들의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산부인과의 딱딱함이 아직도 걸린다면 한의원은 어떤가? 요즘에는 TV에도 자주 나오는 이유명호씨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비롯하여 책 출판, 캠페인 연재 등을 통해 여성들의 고통을 진맥해준다. 이 페미니스트 한의사는 생리통을 비롯한 많

## 산/부/인/과.. 가기 꺼려지나요?

은 여성 질환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www.yakchobat.com](http://www.yakchobat.com)으로 들어가면 그녀의 한의원과 한방치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평소 궁금해했었던 질문에 대한 친절하고 대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을 꼭꼭 눌러 참지만 말고 능동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 < 소녀들의 산부인과 >

홈페이지주소 [www.teenchacares.com](http://www.teenchacares.com)  
문의전화 02) 3468-3323~4, 569-7510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성관계 시에 여성의 '처음'을 따지는 여러 말도 안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마도 '처녀막 유무'가 아닐까 한다. 단 한번도 보지 못한 이 대단한 막은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여성의 '처음'을 '감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인 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다. 사람들은 일단 '처녀막' 하면, '막'의 어감 때문에 흔히 귀의 고막 같은 막을 생각하게 된다. 허얇고 얇은 막이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런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라. 그런 막이라면 도대체 생리혈은 어떻게 나온 단 말인가?

'처녀막'은 질 입구 즉 외음부의 소음순을 양옆으로 벌려 보면 대음순(클리토리스) 아래 동그랗게 견고한 결체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 것은 질 입구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질 주위에 주름 같은 조직이 있는 모양을 생각한다면 맞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처럼 꼭 막인 '막'이 아니라 그 자체에 원래 구멍이 있는 조직이다. 그 때문에 월경도 가능한 것이다. 성관계 시에 통증과 출혈이 있는 것은 조직이 커서 질 입구가 좁은 경우 삽입시에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처녀막'이란 없으며,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조직이 존재한다. '꼭 막인' 형태가 말로 '폐쇄성'이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고통 받아야 하는가?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보같은 환상은 버리라고 좀 가르쳐 주자. '그냥'들이 집착하는 그런 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학내  
생리대  
지판기  
현황

교양관 - 1층 여자화장실 내부(정상)  
정경관 - 아무데도 없음(리모델링 후 사라졌다고 함)  
국제관 - 1층 여자화장실 내부(정상)  
서관 - 2층 좌, 우측 여자화장실 내부에 각각 있음(정상)  
여관 - 1층 휴게실에 있으나 생리대 딱 하나 남았음  
법대신문 - 1층 여자화장실 내부(정상)  
법대구관 - 아무데도 없음  
사대구관 - 아무데도 없음  
사대신문 - 1층 여자화장실 내부(정상)

경영구관 - 아무데도 없음  
경영신문 - 1층 여자화장실 내부(정상)  
LG-POSCO 경영관 - 그 좋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없음  
라이스홀 - 1층 여자화장실 내부(상품없음)  
중광 - 지하 1층 좌, 우측 여자화장실 내부에 각각 있음(정상)  
제2학관 - 아무데도 없음  
홍보관 - 3층 여자화장실 내부(상품없음)  
학관 - 3층 여자화장실 앞(정상)  
과도관 - 있음

생활관 - 여학생 휴게실 옆에 하나 있음. 옛날자판기(상품없음)  
생관대 - 새로지은 건물. 자판기 아무데도 없음  
이학관 - 2, 4층 휴게실 맞은 편 화장실에 설치  
공학관 - 2층 하나  
제2이학관 - 하나도 없는 듯 하였으나  
화장실에 하나 발견  
제2공학관 - 전체 건물에 여자화장실 단 2개  
2층에 하나  
창의관(제2신학관) - 하나도 없음



지난 겨울부터 온 극장가를 총성으로 뒤덮더니 순식간에 각각 천만 관객 동원을 해냈다. 유행처럼 사람들을 극장으로 몰아넣은 이 두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일까? 명작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문제'작이긴 하다.

요즘 나오는 여느 한국 영화처럼 두 영화에는 여성의 존재가 없다. 사회 많은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희미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 속 '아버지'가 희미해질수록 영화 속 '아버지'는 강건해진다. '실미도'에서 인천(설경구)은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를 만나고자 한다. 반면 어머니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조용히' 간해 있다. 이는 '태극기...'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견된다.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를 대신하게 된 '진태'(장동건)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옛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에 비해 그의 어머니는 자 뒤에서 그를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다. 두 어머니는 이 거대한 상황에 끌 수가 없다. '실미도'의 어머니는 사진 속에 갇혔고, '태극기...'의 어머니는 언어 장애가 있다. 아버지는 부재하지만 감하고, 존재하는 어머니는 나약하며 목소리마

저 빼앗겼다.

'인권 침해'와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난데없이 여성을 찾나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 침해'와 '전쟁'은 여성과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성 권력자들의 이런 싸움으로 벌어지는 '전쟁'의 가장 큰

도 몇 번씩 느낄 정도로 일상적이다. 하지만 정작 그 주제를 다룬 위 두 영화는 남성의 시점으로 연기할 뿐, 여성은 철저히 배제 되어 있다. 영화 밖에서도 여성 관객이 배제되면서 그런 역사에서는 여성은 부수적일 뿐, 주체가 아니라는 고정 관념을 만들어 낸다.

두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장면은 '실미도'의 윤간 장면이다. 여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참을 수 없는 성욕의 해결 못함'이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간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젠 자긔자긔 하다. 남성 관객은 윤간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대원들의 '발광한' 상황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여성 관객은 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에 질려야만 했다. 윤간 장면은 현재 여성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인권을 유린당한 존재'도(영화 속 대원)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존재'(선생님)가 여성이다. 그리고 그 침해당한 인권은 영화에서처럼 문제 제기 되지도 않는다.

두 영화는 결국 리얼리티를 핑계로 폭력적인 영상을 강요하고, 남성의 눈 밖에 갖지 못한 영화일 뿐이다. 자랑스럽게 걸린 천만 관객 동원의 타이틀은 오히려 부끄럽기만 하다.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천만의 명작? 천만에!



(3.8 다들잡히후기)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다름으로 달은 여성연대 주최 하에 세계여성의 날 96주년을 기념하여 3.8여성무지개 시위가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성이반종물과 바람소리의 길놀이로 시작하여 간단한 퀴즈대회로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장애여성과 성소수자들이 들기 싫은 말 Best5로 꾸미진 퀴즈대회는 가볍게 진행되었지만 우리가 무심하던 말들을 다시금 생각해볼게 만들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동정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들을 향해 자신들도 당당한 하나의 자립된 인격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뒤의 행사들도 대부분 이처럼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그들의 소외와 아픔을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숨겨진 우리들을 말한다!'라는 연극에서는 동화 신데렐라의 뒷부분을 꾸밈으로써 구두에 발이 맞지 않아 발이 잘린 언니들,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되어 집을 나간 새어머니, 왕자님을 만나 떠난 신데렐라의 불행 이야기를 했다. 여성으로서 겪는 아픔들을 진지하게 엮어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숨죽이고 연극을 지켜보았다. 신데렐라

가 요정과 사람에게 빠져 커밍아웃을 하는 부분이 뜻하지 않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 성소수자들이 숨죽이고 살아야하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웃을 수만도 없었다. 사실 그날 집회는 성소수자들이 아웃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이 금지되었다. 소외되는 소수여성들과 오히려 그들이 내민 손으로 모두가 화합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간단했지만, 차별과 억압받는 여성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보는 동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다. '분홍 립스틱'을 개사한 '분홍 무지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보름 때는 느끼지 못했을 만한 감동을 느꼈다. 여성소외에 분노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집회에 참가하면서 연극과 노래와 율동을 통해 가슴으로 더욱 외달는 경험을 하게되었다. 그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 모두 아름다웠고 당당했다. 다름으로 달아 있는 우리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에 당당히 맞서 조아여울씨의 말처럼 '1년 내내 여성의 날이 되길' 아니, 여성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물리학과 송하나

Fresh Wom's Guide Review



새타에서 볼 수 있도록 배포되었던 Fresh Wom's Guide는 여성주의에 관해 새내기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주의의 즐거움'이라는 파트에 나오는 여성주의를 하고 있는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열정과 보람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파트인 '여성주의 네트워크'에서는 교내 여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소개했으며 '여성주의로 세상보기'라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슈가 되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평하고 여성주의 영화와 책을 소개했다. Fresh

Wom's Guide는 사람들 사이에 퍼트려 자신의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제시해줬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대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재미로 무심히 보아 넘겼던 흥행질주를 달리는 영화들을 씹어볼 수도 있었다. 또한 여성주의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궁금증도 속 시원히 털어낼 수 있었다. 이 책자는 여성주의가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천리향은 여성학도서관의 이름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여성주의 도서에서부터 전문서적으로 쓰일만한 전문도서까지 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성주의 교자와 세미나 자료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마땅한 책이 없을 때, 여성학 레포트 자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관 3층 여우형을 찾아주세요.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차한 전과 함께 편안하게 여성주의 사역을 읽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천.리.향